

염상섭의 유머 감각

김학균 서울시립대학교 학사교육원 연구 교수

1. 염상섭 소설이 재미있다고?

염상섭 소설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의 소설이 재미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긴 문장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에 혀를 내두를 수는 있어도 그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염상섭의 소설을 읽은 당대의 비평가들은 ‘비탄의 상섭’이라는 별명까지 붙여 주었다. 그의 소설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중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그리는 데에 집중하였고, 또 당시 지식인들의 내면적인 갈등을 묘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그리려다 보니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 문장으로 반 페이지 이상 채운 것을 보면 재미보다는 감탄이 먼저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조익관에게는 평생의 오입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을사조약 한창통에 그때 돈 이만 냥 지금 돈으로 사백 원을 내놓고 사십 여세에 육관

자를 붙인 것이다. 차함은 차함이로되 오늘날의 조의관이란 택호(宅號)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는 육년 전에 상배하고 수원집을 들여왔던 것이니 돈은 여간 이만 냥으로 언론이 아니나 그 대신 귀순이를 낳고 또 여든 다섯에 죽을 때는 열다섯 먹은 아들을 두게 될지 모르는 터인즉 그다지 비싼 오입이 아니나 맨 나중에 하는 오입이 이번 이 대동보소를 맡은 것인데 이번에는 좀 단단 걸려서 이만 냥의 얼굴 이십만 냥이나 쓴 것이다.¹⁾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세 번째 문장은 원고지 한 장을 넘는 정도의 긴 문장이다. 웬만한 작가라면, 조의관이 벌인 세 가지 ‘오입’을 한 문장씩 나누어서 설명했을 터인데, 염상섭은 한 문장으로 조의관이 벌인 일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게 되니, 조의관이 벌인 앞의 두 가지 일과 세 번째 일이 뚜렷하게 대조된다. 염상섭이 노린 것은 바로 이런 효과일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을 쓰면서도 문법적인 오류는 물론 독자들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 없이 물 흐르듯이 문장이 흘러간다.

그렇지만 역시 이 문장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복병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문장에는 ‘옥관자’, ‘차함’, ‘택호’, ‘상배’와 같은 단어들 있어 읽는 이를 알쏭달쏭하게 만든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염상섭 소설어 사전》까지 출간되어 있다.²⁾

위의 인용문을 쉽게 풀어 보면, 조의관이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쓴 경

1) 염상섭, <삼대>, 《염상섭 전집》, 민음사, 1987, 80.

2) 광원석 편(2002), 《염상섭 소설어 사전》, 고려대출판부.

우가 세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조외관’이란 벼슬을 사기 위해 쓴 것이요, 다른 하나는 수원집을 첩으로 들여서 딸을 낳은 일이요, 세 번째는 족보를 만드는 데 많은 돈을 쓴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염상섭이 쓴 문장을 바꿔 놓고 보니 문장이 뭔가 밋밋하고, 힘도 없고, 긴장감도 없다. 그렇다면 염상섭 소설이 정말 재미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위의 문장만 놓고 보더라도 ‘깨알’ 같은 염상섭만의 유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입’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서술자는 조외관이 한 일을 일컬어 ‘오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일임을 알려 준다. 이 하나의 단어로 서술자는 조외관에 대해 풍자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벼슬을 사기 위해 돈을 쓰고, 칠순이 가까운 나이에 첩을 들여 아이를 낳고, 그것도 모자라 조 씨 문중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이것을 그냥 ‘실수’나 ‘쓸데없는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면, 소설로서의 긴장감이나 재미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오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작가는 등장인물을 풍자하고, 구시대의 인물들이 벌인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마음껏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작가의 의지도 드러난다. 가끔씩 염상섭 소설은 주제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단어 하나로 작가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2. 한시의 패러디

염상섭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운 적이 있다. 비록 한학을 배우는 동안 할아버지에게 칭찬보다는 이둔하다는 질책을 받았지만, 염상섭의 소설에는 그의 한문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나기도 한다. <무화과>에서 이원영은 기생 채련을 만나 한시(漢詩)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녀가 범상치 않은 여자임을 알게 된다. 원영은 채련을 통해 오래전에 원영의 조부와 채련의 부친이 이들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시를 통해 두 남녀가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다는 설정은 ‘로맨틱’하지만, 다소 엉뚱해 보인다.

지금 채련이는 ‘견우’를 ‘빙인’이라 하고 ‘벽공허’를 ‘고인허’라고 바꿔 놓았으니, 그 시는 진이의 시³⁾임을 안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채련이 품은 뜻을 알리려는 모양이다.

빙인(氷人)이란 중매라는 말이니, 중매가 한 번 간 뒤에 마침내 고인의 허락(故人許)을 저버렸다는 뜻인가? 중매가 죽으니까 돌아간 부모가 정해 준 혼인이 안 되어, 기생으로 몸을 빠뜨렸다는 말인가? 그러기로 지금 별안간, 자기에게 그 말은 왜 하려는 것일까……? 원영이는 암만 생각해야 이유를 알 수 없다.⁴⁾

채련은 원영이 부친이 맺어 준 남자라는 것을 알고, 오래 전부터 이

3) 誰琢崑崙玉 裁成織女梳 / 牽牛一去後 愁擲碧空虛(누라 곤륜산 옥을 쪼아 직녀의 얼레빗을 만드셨던고, 견우님 가시오매 못내 싫어 벽공에 던졌세라.)

4) 염상섭, <무화과>, 두산동아, 1997, 107~108.

것을 알릴 기회를 엿본다. 그녀는 원영이 그녀의 술집에 우연히 들렀을 때, 그와 한시를 주고받으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알린다. 그녀는 ‘육군 참장 김우진’의 셋째 딸로, 원영의 조부 이의관이 손자며느리로 찍어든 여자였다. 원영은 이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녀를 둘째 부인(첩)으로 맞이한다.

〈무화과〉는 〈삼대〉의 후속작으로 〈삼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을 바꿔 등장한다. 이원영은 〈삼대〉에서 손자대에 해당하는 조덕기의 후신이다. 그의 조부인 조의관은 칠순이 가까워 수원택을 첩으로 들이면서 죽음을 재촉하였고, 그의 부친인 조상훈은 아내를 두고, 흥경애를 농락하여 딸을 얻고도 못 본 체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첩을 얻어서 새살림을 차리기도 하였다. 조상훈은 잠시 기독교에 귀의하기도 했으나, 한번 타락한 이후로는 욕망의 끝을 모르는 호색한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 씨 일가는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 몰락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원영의 경우는 그의 부친이나 조부와는 다르게 채련을 둘째 부인으로 들이면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그는 신문사에 가진 재산을 모두 투자하고,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자’ 김동국을 도우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신문사에 투자한 돈은 회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김동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는 형사들의 추적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그가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채련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원영을 위기에서 구하는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채련이 원영을 만나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매우 공들여 묘사되지 않을 수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처럼, 원영의 부친이나 조부가 한 일은 불륜이었지만, 이원영이 두 번째로 얻은 부인은 ‘첩’이 아니라 ‘둘째 부인’이 되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다.

3. 휘모리의 한 장면

〈광분〉은 1929년 10월 3일부터 1930년 8월 2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이다. 조선의 거부인 민병천의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벌이는 암투와 그로 인한 민병천 가문의 몰락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민병천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중 민병천의 첫째 딸 경옥의 몸종인 을순이와 민병천 집에서 기숙하고 있는 의대생 이진태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젊은이들로 묘사된다. 진태는 의식 있는 청년으로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 운동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서 ‘광고지’를 뿌린다. 이 일로 인해 박람회장이 이수라장이 되는데 작가는 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군중은 또 와작 모여들었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누르고 밟고 일어서서 때마다 예구구 죽는 소리가 차례차례로 더 높아간다. 마고자가 으스스러진 사람은 약과다. 부러진 안경다리를 만지는 사람도 운수대통이다. 복장을 치면서도 수세미가 된 생필 두루마기의 흠을 털 기운도 있는 사람도, 제집에 가면 삼동네 사동네 이야기 삼아 떠들고 다닐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도 운수대통)이다. 그러나 배창자를 부둥켜안고 그 자리에 앉은 채 땀을 도는 사람, 한편 뺨을 눈에서부터 긁히고⁵⁾ 머리가 내둘러서 일어섰다 쓰러지는 사람, 입술이 깨어져서 피를 뿜는 사람, 코피가 앞섶 자락으로 고랑을 지어 흐르는 사람……난장판이다. 수라장이다. 아무도 두서를 차릴

5) ‘긁혀대고’의 오자로 보임.

수가 없다. 사람은 더 꼬여든다. 불을 잡으니까 불구경꾼이 한데 합친 것이다. 이런 구경만 하여도 입장료는 빼었다는 듯이 자꾸만 급급히 모여든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어떻게 하겠다는 엄두를 내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중에 제일 용감한 몇몇 사람이 나서서 다친 사람을 부축해주고 흐르는 피를 씻어주는 외에는 누구나 진부답⁶⁾이나 칠까 봐서 몸을 사릴 뿐이다.⁷⁾

군중이 ‘광고지’가 뿌러지자,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면서 그 일대가 온통 아수라장이 된다. 마치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며 나타났을 때 아수라장이 된 동헌의 모습을 묘사하듯이 작가는 이 장면에서 짧은 문장을 연이어 쓰면서 사태의 긴박성을 더하고 있다. 판소리의 휘모리 장면이 가창되듯이, 작가는 빠른 박자로 말을 쏟아놓는다. 그리고 반어적인 문투를 사용하여 현장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마고자가 으스러진 사람은 약과다”라는 문장은 현장이 얼마나 난장판이고, 다친 사람이 많았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어서 다친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런 구경만 하여도 입장료는 빼었다는 듯이 자꾸만 급급히 모여든다”는 문장은 대중의 심리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다치고,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박람회장의 재미난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몇몇은 다친 사람들을 돌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남의 일에 말려들기 싫어서 모른 척 내버려 두고 있다.

6) ‘진구답’의 오기.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한 뒤치다꺼리하는 일.

7) 염상섭, <광분>, 프레스21, 1996, 216.

이처럼 염상섭은 판소리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긴박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다.

4. 몸으로 하는 개그

〈효풍〉은 해방 후 좌우익이 대립하면서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이 가까웠던 1948년에 나온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이 곧 전쟁을 일으키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계급의 관점이 아니라 민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염상섭의 ‘중간과 의식’을 담은 소설이다.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6·25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소설에는 영문학자이자 민족주의자인 김관식이라는 지식인이 등장한다. 그는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시대적 혼란상을 온몸으로 경험한다.

다 젖어 비눗물 묻은 턱이 시릴 지경이나 가다가다 기웃이 머리를 들어 체경에 비치는 이발사의 끝만 엿볼 뿐이요 감히 재촉도 못하고 가만히 하회만 기다리고 누워 있었다. 손님이 있는 것은 잊은 모양이다. 이발사는 다 탄 담배꼬투머리를 탁 던지고 그제서야 손에 집어들었던 면도칼을 피대(皮帶)에 다시 갈아가지고 덤벼든다. 처끈하고 또 한번 비누칠을 하더니 영감 생각에도 퍼렇게 얼었을 인중과 턱살을 박박 긁는다. 쓰러린 품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인제는 바쁘지가 않은지? 흥이 났는지 차디찬 물 묻은 손끝으로 턱이며 뺨이며 싹싹 문지르며 짚은 데를 또 짚고 한다. 쓰러리다 못해 아플 지경이다.⁸⁾

오십대 중년 김관식이 머리를 깎는 장면이다. 한 시간을 기다려 겨우 10분 동안 머리를 깎고, 이에 대한 불만을 잠시 표하자, 이발사는 면도를 기다리며 누워 있는 사람을 아랑곳 않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한참 후에 이발사는 다 얼어 터진 턱을 박박 문질러 면도를 한다. 이발사는 손님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다. 영감은 이발사의 그런 불친절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데, 독자들은 그 장면을 눈앞에 그려 보면서 미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이발사는 이어서 영감의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찬물을 부었다가 하면서 영감을 골탕 먹이는데, 이발 요금을 다른 사람에게는 100원을 받고, 영감에게는 그보다 20원을 더 받는다. 이발 요금도 이발사가 부르는 것이 값이고, 어제까지 60원 하던 이발 요금이 하루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이 한 장면만으로 해방 후에 조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는다. 혼란스러운 해방 후의 서울 풍경을 김관식이 머리를 깎는 장면으로 묘사하였고, 그것도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염상섭은 신문 연재소설을 말년까지 계속해서 썼다. 신문 소설은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신문 소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염상섭은 그의 소설 곳곳에 재미있는 장면들과 단어들을 숨겨 놓았다. 그의 길고 지루한 문장들 사이에서 가끔씩 만나는 재미있고, 우스운 장면이야말로 마른 대지에 가끔씩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반가운 대목들이다.

8) 염상섭, <효풍>, 실천문화사, 1998, 120.